

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(준)

보도자료: 한국블록체인협회(준)
171215-1호

보도일자: 2017.12.15

제 목: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

□ 추진 경과

- 지난 9월 1일 정부 ‘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’ 논의 결과, 업계에 자율규제안을 권고
-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(이하 협회 준비위)는 정부합동TF의 권고에 따라 자율규제안 마련 작업에 착수,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자율규제안을 작성, 은행권의 검토의견까지 수용해 완성

□ 자율규제안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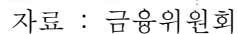
1.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

- 금전(원화) 예치금의 경우 100% 금융기관 예치
- 암호화폐 예치금의 경우, 콜드월렛 70% 이상 의무화
- (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 분리) 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, 관리토록 자율규제안에 명시. 거래소는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·관리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토록 하며,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·관리상황 공시
- (교환유보암호화폐의 유지 및 분리관리) 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암호화폐를 회사가 보유하는 교환유보암호화폐 이외의 암호화폐와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 및 분리 관리함
- 고객이 거래소에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폐의 총량의 100% 이상으로 하며,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량의 70%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(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되는 암호화폐 지갑 등을 의미)에 보관토록 함

2.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

- ### 3.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·출금 관리

- ### <은행 가상 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>



※ 대사 시스템이란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이용자 정보(성명, 이용자의 은행계좌,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)를 확인하고,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·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뜻함

4.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

- (민원관리 시스템 구축) 거래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체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며, 고객이 방문·전화·이메일·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. 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
-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며,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해 민원예방에 노력할 것임.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를 고객이 수급할 수 있도록 법규,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, 가능한 자세히 기재토록 함.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이메일·문자메시지·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

5.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

- 자율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내 상법을 따르며,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함
-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,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

6.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

-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, 부정거래행위 등을 일체 금지함. 거래소 임직원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
-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부당·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회원은 물론 회원의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를 권고할 수 있음

7.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

-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토록 함. 학계,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전문가, 회계·재무·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

□ 기대 효과

-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,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어느 자율규제안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

□ 향후 계획

-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
- 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2018년 1분기 내에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
- 2018년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, 협회 준비위는 2018년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정식 출범한 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 시행할 계획